

속담을 통해서 본 조선족의 부모-자녀 관계 가치관

The Examination of Korean-Chinese Parent-Child Relationships through Korean Proverbs

경희대학교 아동가족전공

교수 조복희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조교수 이주연*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이영환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hee University

Professor : Bokhee Cho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Jooyeon Lee

Departmen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Younghwan Yee

◀ 목 차 ▶

I. 연구의 목적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및 해석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Korean-Chinese parent-child relationship values through Korean proverbs 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 total of 233 Korean-Chinese who reside in Yungil, China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ere recruited through Korean-Chinese preschools and elementary schools. They completed a questionnaire which asked to what extent they agreed or disagreed with Korean proverbs. The items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filial piety (duty), child-care and education, childrearing practices, and traditional son preference (and daughter discrimin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although the participants highly agreed to the meaning of the proverbs, they seldom used Korean proverbs in their daily lives. The findings concluded that the participants generally manifested a traditional value of filial piety or duty. Also, the findings showed that more fathers acclaimed the value of traditional son preference (and daughter discrimination) than mothers. Finally, the degree of

Corresponding Author : Younghwan Yee, Department of Child Studi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664-14, Duckjin-dong, Jeonju, Jeonbuk, 561-756, Korea Tel: +82-63-270-3838 Fax: +82-63-270-3839 E-mail: yyh3838@chonbuk.ac.kr

*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familiarity with Korean culture was found to be a major factor in explaining differences in levels of agreement or disagreement to the proverbs.

Since Korean-Chinese ethnic minority groups in China tend to adhere to traditional Korean values, they might encounter more challenges assimilating into the mainstream Chinese culture.

주제어(Key Words) : 연변 조선족(Yanbian Korean-Chinese), 속담(proverb), 부모-자녀관계 가치(Parent-Child Relationship Values)

I. 연구의 목적

중국 조선족은 100년이 넘는 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민족어와 민족문화를 유지하고 계승하는 폐쇄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다. 특히 연변지역은 중국 내에서 조선족이 가장 많이 집중해 있는 자치지역으로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설립 당시 여기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350,898명으로 자치주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하였으며 중국 내 조선족 총 인구의 49.7%가 여기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전역에 걸친 이촌향도형(離村向都型)의 탈농촌 도시화 현상은 연변지역 조선족에게도 예외가 아니어서 조선족 공동체 기반 붕괴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지정 이래 꾸준히 증가하던 조선족 인구 수는 1995년 859,956명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 2000년에는 자치주 전체 인구 2,814,502명의 38%(842,135명), 2005년에는 33% 수준으로 떨어져(이병기, 2006) 자치주 지정의 최소 요건, 즉 소수민족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 현실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사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한민족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이자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오랜 분단으로 이질화되고 있는 한국과 북한을 연결하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국인의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 조선족이 100년 이상 뿌리를 내리고 살아 온 민족으로서 그들의 발전문제는 또한 우리의 관심사이다. 학문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중국 조선족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일이며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연변 자치주 거주 조선족은 중국 정치체계의 이데올로기적 변화 과정과 중국문화의 영향 속에서도 한국적 문화 습속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고 연구들은 보고한다. 중국 정부의 정책이 전체적인 평등과 집단주의 이념을 추구해 왔어도 오랜 세월을 걸친 가족을 강조하는 유교문화 부계가족의 가족관을 불식시키지 못하였으며, 전통적인 윤리가 상당히 잔존하고 있다(연변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편, 2002; 최상록,

지청산, 김룡철, 1995). 현재 중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역사의 흐름과 세대의 교체, 문화의 발전 등으로 변화를 겪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래 된 한국의 전통적 풍습이나 관습이 외부 문화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채로 보존 계승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리적인 위치상으로는 중국 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생활방식 및 문화적인 유산은 한민족의 그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조선족 자치주인 특수지역 거주자의 가정환경과 가족관계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관심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변의 조선족과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연구 도구로 속담을 사용하였다. 속담은 대체로 교훈이나 풍자를 하기 위하여 어떤 사실을 비유나 은유의 방법으로 서술하는 비교적 간결한 관용어구이다. 속담은 처음에는 개인적, 구어적, 특수적인 것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언어대중에 의해 거듭하여 반복 인용되고 공유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반영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생성된 속담이 꾸준히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인용되고 있다는 점은 과거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형성, 전승되어 온 속담이 현대를 사는 오늘의 일반대중에게 얼마나 공감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면 전통적 가치의 변화 또는 공유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자관계를 강조했던 전통 가족구조에서는 “효”라는 이념에 근거한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강조하여 “아버지의 그림자는 밭지도 않는다”와 같은 속담이 형성되었으며, 자녀 훈육에 있어서도 “회초리를 아끼면 자식 버린다”에서 보듯이 부모의 권위주의적 인 양육방식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속담·숙어가 많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를 담고 있는 부모-자녀 관련 속담을 연구 도구로 하여 연변 조선족의 가족 가치를 조사 분석한다면 연변 조선족의 전통적 가치 보존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좋은 자

1) 조선족의 이동은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연해지구로 몰리고 있으며, 한·중 수교를 계기로 중국 조선족의 한국으로의 이동이 지배적인 이동패턴으로 나타난다(이병기, 2006).

료를 제공할 것이다.

속담연구는 국문학과 민속학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었고 따라서 속담자료를 채집 정리하는 연구(송재선, 1983, 1995; 이기문, 1986)나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속담 구조분석(조계윤, 1986)연구 혹은 속담의 의미론적 연구가 흥미있는 주제 중의 하나였다. 최근까지 속담풀이 연구(김준영, 2006; 최근학, 1986)도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다. 한편 속담은 민중 속에서 생성, 성장, 소멸하며 그 민족의 풍속이나 문화뿐 아니라 한 사회의 공유된 가치와 신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사고유형, 의식구조, 행동양식을 연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속담을 통하여 전통사회의 여성관을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방운규, 2004; 이하배, 2001), 속담을 통해 한국인의 심성과(최상진, 1990; 최상진, 유승엽, 1994) 인간관계(고영복, 2004)를 고찰하였으며, 김은주, 서영희와 임재택(2006)은 아동관을, 김희섭과 이경화(2007)는 자녀 양육관을 분석하였다.

또한 속담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속담을 공유한 사람들의 공동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속담의 비교문화적 접근은 민족 간의 가치를 비교분석하는데 훌륭한 도구가 되어 준다. 속담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여성에 대한 태도나 여성상을 비교분석한 연구(김주광, 1993; 서동래, 2003; 안미정, 1998; 최성곤, 1995)도 있으며 최근 모리모토 가즈히코(2007)는 가정과 부부에 관한 속담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가족관계를 비교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한국과 중국 속담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에 대한 비교연구(주옥파, 2004), 속담을 통한 한국과 독일인의 의식구조 비교 연구(김건한, 이동용, 방운규, 2004), 한국속담과 아랍속담을 통하여 부(富)에 대한 가치를 비교한 연구(김종도, 2007) 등 다양한 문화권과 속담의 비교문화적 접근을 통하여 문화와 의식구조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속담 중에서 특히 가족 관계를 표현하는 속담²⁾은 전통적 가족 가치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좋은 자료일 뿐 아니라 현대의 가치와 상반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치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박환영(2003)은 사람과 관련된 속담으로서 인륜(人倫)의 문제를 표현하고 있는 속담들을 통하여 부모-자식, 딸과 며느리, 사위와 장모 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형제자매, 인척과 외척, 남편과 아내 등 가족과 친족의 민속학적 연구를 하였다. 김은주 외(2006)은 아동관련 속담 175개를 선정하여 우리나라의 전통 아동관과 교육관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들 속담 관련 선행 연구들은 기존에 채집된 속담·속어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과거의 가치 파악에만 제한되어 있으며, 오랜 시간을 걸쳐 형성되어 온 속담·속어

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인지되고 공감되며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전통사회에서 형성된 속담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유지되고 변화되며 단절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시도한 연구는 심영(2006), 조복희, 안선희, 이영환과 이진숙(1998), 조복희와 이진숙(1998) 등 몇 편에 불과하다. 심영(2006)은 속담에 내포된 한국인의 전통소비가치들 중 오늘날 소비자에게 공감되며 실제 소비생활에 적용되는 소비가치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특히 조복희 외(1998), 조복희와 이진숙(1998)은 자녀의 가치, 자녀에 대한 애정, 남아선호, 딸에 대한 양가 감정, 자녀교육의 중요성, 양육의 어려움, 자녀의 부모 동일시, 절도 있는 훈육, 효 등 부모-자녀 관계 관련 속담 95개를 선정하여 전통사회에서 형성, 구전되어 온 속담이 현대사회의 일반 대중에게 얼마나 인식되며, 동의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속담은 민중의 생생한 생활철학이 드러나고 있으며, 시대상을 반영하는 사회적 산물(고영복, 2004)이기 때문에, 전통사회에서부터 회자되고 있는 가족관계 속담이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동의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는 것은 전통과 현대의 연결과 단절, 그리고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연변 조선족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 속담의 동의도를 측정하는 계량적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연변조선족에 유지되고 있는 부모-자녀 관계에 관련된 가치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연변 조선족의 부모-자녀 관계 속담 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속담에 대한 인식과 문화 친밀도, 언어 친밀도, 친척관계에 대한 친밀도, 그리고 인구학적 변인을 선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연변 조선족의 속담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연변 조선족의 조선족의 문화·언어·친척관계 친밀도 정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부모-자녀관계 속담의 동의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인구학적 특성, 속담 인식도, 문화·언어·친척관계 친밀감이 연변 조선족의 부모-자녀관계 속담 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가족 관계를 표현하는 속담은 자녀의 가치, 남아선호, 자녀교육, 부모의 은혜, 자녀에 대한 애정, 효도, 양육 스트레스,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고부관계에 관한 속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박환영, 2003).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233)

변인	집단	빈도	백분율	변인	집단	빈도	백분율
성별	남	87	37.3	자녀수	0명	12	5.2
	여	145	62.2		1명	152	65.2
연령	20대 이하	16	6.5	2명	44	18.9	
	30대	138	59.2	3명 이상	23	9.8	
	40대	45	19.3	아들만	74	31.8	
	50대 이상	34	14.6	딸만	103	44.2	
학력	소학교졸업	17	7.3	자녀구성	둘 다 있음	43	18.5
	초중졸업	73	31.3		둘 다 없음	12	5.2
	고중졸업	90	38.6	확대가족	동거	93	39.9
	전과졸업이상	45	19.3	동거유무	비동거	125	53.6

주. 결측치를 포함하지 않아 빈도 및 백분율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국 연변(길림성 연길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성인남녀 2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233명 중, 남자가 87명으로 37.3%, 여자가 145명으로 62.2%였으며, 연령은 30대가 138명(59.2%)으로 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40대는 45명(19.3%), 50대 이상은 34명(14.6%), 그리고 20대 이하는 16명(6.5%) 순이었다. 학력은 초중(중학교) 졸업 이하가 90명(38.6%), 고중(고등학교) 졸업이 90명(38.6%)으로 동일하였고 전과(2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은 45명(19.3%)을 차지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자녀수는 1명인 경우가 152명(65.2%)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의 구성형태를 성별에 따라 분류했을 때, 딸만 있는 경우가 103명(44.2%), 아들만 있는 경우는 74명(31.8%), 그리고 아들과 딸 모두 있는 경우가 43명(18.5%) 순으로 나타났다. 확대가족³⁾이 함께 사는지를 조사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93명(39.9%)이었으며, 125명(53.6%)은 배우자나 자녀와만 살고 있는 핵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표 1 참조).

2. 연구도구

1) 부모-자녀관계 속담

본 연구의 부모-자녀관계 속담은 조복희와 이진숙(1998) 연구에서 사용된 속담을 기본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였다. 부모-자녀관계 속담 하나하나에 대해 본 연구자와 국문학자가 함께 1차 의미분석을 실시하여 양육관련 속담, 자녀교육관련 속담,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관련 속담, 효도관련 속담의 4개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이후 2차 의미 분석 과정에서 세부적인 하위영역을 분류하여 속담 질문지

를 구성하였다. 속담에 대한 동의 정도는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에서 5점(매우 동의한다)으로 평정하였으며, 자료 분석 과정에서 응답자의 20% 이상이 의미를 모른다고 응답한 속담은 제외하였다.⁴⁾ 최종 분석에 사용한 속담은 총 71개로서 4개의 범주, 즉 양육관련 속담(32개), 자녀교육관련 속담(16개),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관련 속담(12개), 효도관련 속담(11개) 등이었다. 구체적인 분류 준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양육관련 속담 : 자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거나 양육의 보람이나 즐거움을 나타내는 등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내포하는 속담(16개)과 양육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양육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내포하는 속담(16개)으로 구성하였다. 조복희와 이진숙(1998) 연구에서는 양육관련 속담을 양육의 어려움, 자녀의 가치, 자녀에 대한 애정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조복희와 이진숙(1998) 연구에서 자녀의 가치로 분류된 속담들 중 일부는 양육의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으며(예, 어머니는 좁쌀만큼 벌어오고 아들은 말뚱만큼 먹는다⁵⁾), 일부는 자녀 양육의 기쁨을 표현(예, 아이들이 아니면 웃을 일이 없다)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분류하였다. 양육관련 속담 총 32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2였다.

3) 동거가족으로 시부모(남자의 경우 친부모)나 친정부모(남자의 경우 처가 부모) 또는 시형제(남자의 경우 친형제)나 친정형제(남자의 경우 처가 형제)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4) 조복희와 이진숙(1998)은 60대 응답자의 70% 이상이 알고 있는 속담의 동의도를 분석하였다.

5) 이 속담은 자녀가 가치가 없다는 의미이기 보다 먹을 것이 귀했던 시대인 만큼 자녀를 배불리 먹이기가 어렵다는 의미로서 양육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속담으로 판단하였다.

② 자녀교육관련 속담 : 가족은 자녀를 돌보는 일상적 양육의 기능과 자녀 사회화인 교육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녀교육에 관한 속담은 부모가 자녀의 모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속담, 자녀의 훈육에 관련된 속담, 그리고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3개 영역은 조복희와 이진숙(1998)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범주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 4개, 훈육 8개, 교육의 중요성 4개 등 모두 16개 속담을 자녀교육 관련 속담으로 분류하였으며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7였다.

③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관련 속담 : 조복희와 이진숙(1998) 연구에서 딸에 대한 양가감정 속담 14개 중 의미분석 과정에서 연구자들 간에 일치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하다고 판단되는 속담(예, 장모 될 여자는 사잇감 코부터 본다, 막내 딸 시집 보내려면 내가 가지)과 3세대 가족관계 관련 속담(예, 외손자를 귀애하느니 절굿공이를 귀애하지)을 제외한 후, 아들·딸 차별 속담 7개와 아들 선호 속담 5개를 합하여 모두 12개의 속담을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 속담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들 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82였다.

④ 효도관련 속담 : 효는 전통사회의 성인 부모-자녀관계에서 강조되는 덕목이기 때문에 효도관련 속담을 하나의 범주로 구성하였다. 조복희와 이진숙(1998) 연구는 효의 권면 및 실천의 어려움을 하나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문항 내용에 따라 일부 속담을 역채점하였다(예를 들면 긴병에 효자 없다, 한 부모는 열자식을 거느려도 열자식은 한 부모를 못 거느린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과 효 실천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속담을 하나의 영역으로 묶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두 개의 하위 범주로 나누었다. '효자 끝에 불효나고 불효 끝에 효자 난다' 속담은 의미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제외하였으며, '자식을 길러보아야 아버지 공을 안다'는 속담은 조복희와 이진숙(1998)에서는 효도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효도보다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속담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동일시로 분류된 '부모가 온 효자 되어야 자식이 반 효자', 양육의 어려움으로 분류된 '외아들에 효자 없다'는 속담은 효도 실천의 어려움으로 분류하였으며 '자식이 부모 맘 반이면 효자된다'와 '자식효도는 부모 반절만 해도 좋다'는 속담을 새로이 첨가하였다. 그 결과 효도관련 속담은 효의 중요성 5개와 효의 어려움 6개 등 모두 1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86이었다.

2) 속담에 대한 인식도

속담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속담의 현실 반영도, 속담의 구시대성, 속담의 실제 사용정도 등 3개 문항

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정말 그렇다(5점)까지의 5점 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3) 문화에 대한 친밀감

문화에 대한 친밀감은 전통문화·언어·친척자녀 관계의 세 개 영역을 포함한다. 문화 친밀도는 즐겨먹는 음식이나 살고 있는 동네, 즐기는 명절 등 문화 및 풍속과 관련된 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언어 친밀도는 가족 및 친구들과 사용하는 주된 언어가 무엇인지와 같은 언어 관련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조선 언어나 조선 문화에 친밀함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국어나 중국문화에 친숙함을 의미한다. 한편 친척관계에 대한 친밀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 친척관계에 대해 각각 어느 정도 가까운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전혀 가깝지 않다(1점)부터 매우 가깝다(5점)까지의 5점 평정척도로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위치한 조선족 유치원 5개소와 소학교(초등학교) 1개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각 기관의 도움을 얻어 학급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학생들을 통해 각 가정과 이웃에게 설문지를 배부하도록 요청하였다.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240부가 회수되어 80%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 중, 분석에 부적절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3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Scheffé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속담 등의 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속담에 대한 인식도

연구대상자들이 속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은 <표 2>와 같다. 대체로 속담이 현실생활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M = 4.10, SD = .94$) 그렇게 고리타분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인식($M = 2.75, SD = 1.20$)하고 있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니었다($M = 2.95, SD = .95$).

〈표 2〉 속담에 대한 일반적 인식

인식 내용	M(SD)
일반적으로 속담은 현실생활을 잘 나타낸다 (현실반영도)	4.10(.94)
속담의 내용은 대부분 고리타분하다 (구시대성)	2.75(1.20)
나는 말을 할 때 속담을 자주 사용한다 (사용정도)	2.95(.95)

2. 문화·언어·친구관계 친밀도

문화 친밀도의 경우 〈표 3〉에서 보듯이 친한 친구 항목 (4.21)에서 점수가 가장 높아 조선인보다는 중국인을 더 친한 친구로 꼽고 있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즐겨 먹는 음식, 살고 있는 동네, 익숙한 문화 등도 조선족의 문화보다는 중국의 문화에 더 친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변 조선족이 경축하고 즐기는 명절에 대한 친밀도 점수는 3.5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다른 항목에 비교해서 조선족 문화가 그래도 가장 많이 남아 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 문화에 대해 느끼는 친밀도

문화 친밀도	M	SD
절친한 친구	4.21	1.16
익숙한 문화	3.91	1.44
즐거먹는 음식	3.94	1.22
경축하고 즐기는 명절	3.52	1.49
살고 있는 동네	3.93	1.53

언어 친밀도의 경우 〈표 4〉에서 보듯이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3.5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 연변 조선족은 조선족 언어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언어에 약간 더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볼 때 가족들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언어나 이해가 잘 되고 친숙한 농담이 조선어이기 보다는 중국어인 경향이 있었다.

〈표 4〉 언어에 대해 느끼는 친밀도

언어 친밀도	M	SD
가족들과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	3.94	1.18
좋아하는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3.68	1.48
이해가 잘 되고 친숙한 농담	3.90	1.45

친척에 대한 친밀도는 매우 가까웠다(5점), 대체로 가까웠다(4점), 보통이다(3점), 별로 가깝지 않았다(2점), 전혀 가깝지 않았다(1점)의 5점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도는 5점 만점에 모든 항목이 4.0 이상으로 나타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부에

대한 심리적 거리는 4.94로 매우 가깝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외조부에 대한 친밀도는 4.88로 두 번째로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지각하였다. 조모와 외조모는 4.76과 4.77로 유사하였으며, 모에 대한 친밀감은 4.70로 나타났다. 특히 부에 대한 친밀도는 4.45로 조부모 및 외조부모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5〉 친척에 대한 친밀도

친척 친밀도	(n = 233)	
	M	SD
부친밀도	4.45	1.40
모친밀도	4.70	1.12
조부친밀도	4.94	2.47
조모친밀도	4.76	2.22
외조부친밀도	4.88	2.43
외조모친밀도	4.77	2.14

3.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속담에 대한 동의도

먼저 연변 조선족의 부모-자녀관계 속담에 대한 전체적인 동의수준은 3.99로 보통 이상의 동의수준을 보였으며, 하위 유형별로 볼 때 아들과 딸 차별에 관한 속담유형을 제외하면 대체로 동의한다(4점) 이상의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다 〈표 6〉. 특히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에 대해 동의도가 가장 높았으며(M = 4.35) 두 번째로 동의도가 높은 유형의 속담은 양육의 즐거움과 보람을 표현하고 있는 양육의 긍정적 측면에 관한 속담(M = 4.30)이었다. 그 다음은 효도의 중요성(M = 4.21)과 효도의 어려움(M = 4.14)에 관한 속담이었으며 부모의 모델링에 대한 속담(M = 4.13) 역시 4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도가 가장 낮은 속담영역은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 속담(M = 3.12)이었다.

〈표 6〉 속담 동의도 평균과 표준편차

속담영역	하위분류	M(SD)
양육 속담	양육의 긍정적 측면	4.30(.53)
	양육의 부정적 측면	3.72(.72)
	전체	4.01(.58)
자녀교육 속담	모델링	4.13(.70)
	훈육	3.75(.82)
	교육의 중요성	4.35(.66)
	전체	4.10(.57)
아들딸 차별 속담	아들딸 차별	3.12(.89)
	효도의 중요성	4.21(.70)
효도 속담	효도의 어려움	4.14(.64)
	전체	4.18(.61)
	부모-자녀관계 속담 전체	3.99(.56)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에 따른 연변 조선족의 부모-자녀관계 속담에 대한 동의도의 차이를 보면 <표 7>에서와 같이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속담 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t = 2.21, p < .05$) 연구대상자 중 남성응답자들($M = 3.28, SD = .93$)은 여성응답자들($M = 3.01, SD = .84$)에 비해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속담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다른 가족가치관과 달리 전통적인 성차별에 기초한 아들과 딸의 구분에 대한 가족가치관의 경우, 연변 조선족 남성의 가치관이 여성들보다 더 보수적임을 보여준다.

<표 7> 성별에 따른 속담 동의도의 차이

변인	집단	n	M(SD)	t
양육 속담	남성	80	4.03(.62)	.45
	여성	129	3.99(.56)	
자녀교육 속담	남성	74	4.15(.63)	.95
	여성	122	4.07(.52)	
아들딸 차별 속담	남성	82	3.29(.93)	2.21*
	여성	134	3.01(.84)	
효도 속담	남성	83	4.20(.66)	.39
	여성	135	4.17(.58)	
속담전체	남성	71	4.04(.60)	.87
	여성	112	3.96(.52)	

* $p < .05$.

자녀 수에 따른 속담 동의도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속담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든 속담영역에서 자녀수가 1명일 때보다는 2명 이상으로 다자녀인 경우 부모-자녀관계 속담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8> 자녀수에 따른 속담 동의도의 차이

변인	집단	n	M(SD)	t
양육 속담	1명	138	3.94(.59)	-2.82**
	2명 이상	60	4.19(.52)	
자녀교육 속담	1명	130	4.06(.56)	-2.16*
	2명 이상	55	4.25(.56)	
아들딸 차별 속담	1명	142	3.01(.83)	-3.19**
	2명 이상	64	3.42(.94)	
효도 속담	1명	143	4.12(.64)	-2.65**
	2명 이상	64	4.34(.52)	
속담전체	1명	121	3.92(.55)	-3.15**
	2명 이상	52	4.21(.52)	

* $p < .05$, ** $p < .01$.

속담은 한 사회 내에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속담에 노출될 기회가 더 많을 뿐 아

니라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반영하는 가족구조인 확대가족 안에서 생활하는 경우 속담에 대한 동의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부부와 자녀 이외에 시부모, 친정부모, 시형제, 그리고 친정형제 등을 포함하는 확대가족 동거유무에 따라 부모-자녀관계 속담에 대한 동의도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9>에서 보듯이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 속담 영역을 제외한 모든 속담 영역에서 확대가족 동거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예측과 달리 확대가족보다는 핵가족의 경우 속담 동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핵가족 내에서 생활하는 조선족이 부모-자녀관계에 보다 집중하는 가족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확대가족 동거유무에 따른 속담 동의도의 차이

변인	집단	n	M(SD)	t
양육 속담	비동거	113	4.12(.57)	3.01**
	동거	84	3.87(.59)	
자녀교육 속담	비동거	107	4.19(.57)	2.16*
	동거	76	4.01(.57)	
아들딸 차별 속담	비동거	118	3.22(.84)	1.84
	동거	86	2.98(.96)	
효도 속담	비동거	119	4.30(.61)	2.96**
	동거	86	4.04(.60)	
속담전체	비동거	102	4.09(.56)	2.52*
	동거	70	3.87(.54)	

* $p < .05$, ** $p < .01$.

학력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속담 동의도를 분석한 결과 <표 10>과 같이 속담전체 ($F = 3.56, p < .05$)와 하위 영역 중

<표 10> 학력에 따른 속담 동의도의 차이

변인	집단	n	M(SD)	F
양육 속담	초중졸이하	79	4.14(.63) _a	3.45*
	고졸	82	3.93(.58) _{ab}	
	전과졸이상	41	3.89(.46) _b	
자녀교육 속담	초중졸이하	73	4.20(.59)	1.96
	고졸	76	4.08(.57)	
	전과졸이상	41	4.00(.48)	
아들딸 차별 속담	초중졸이하	82	3.28(.83)	2.62
	고졸	85	2.98(.92)	
	전과졸이상	42	3.05(.92)	
효도 속담	초중졸이하	83	4.31(.62) _a	3.33*
	고졸	85	4.14(.64) _{ab}	
	전과졸이상	43	4.03(.49) _b	
속담전체	초중졸이하	69	4.13(.59) _a	3.56*
	고졸	70	3.95(.56) _{ab}	
	전과졸이상	38	3.85(.42) _b	

* $p < .05$.

양육관련 속담($F = 3.45, p < .05$) 및 효도관련 속담($F = 3.33,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부모-자녀관계 속담, 특히 양육관련 속담과 효도관련 속담에 대한 동의도가 높아 전통적 가족가치관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구성을 아들만 있는 집단, 딸만 있는 집단, 그리고 아들과 딸 모두 있는 집단으로 구분한 후 속담 동의도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속담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1> 자녀구성에 따른 속담 동의도의 차이

변인	집단	n	M(SD)	F
양육 속담	아들만	70	4.06(.61) _{ab}	5.24**
	딸만	91	3.89(.56) _a	
	둘 다 있음	38	4.24(.51) _b	
자녀교육 속담	아들만	68	4.14(.58) _{ab}	3.55*
	딸만	83	4.02(.52) _a	
	둘 다 있음	35	4.31(.60) _b	
아들딸 차별 속담	아들만	71	3.07(.83) _a	8.02***
	딸만	95	2.99(.82) _a	
	둘 다 있음	40	3.62(.98) _b	
효도 속담	아들만	74	4.24(.62) _{ab}	3.94*
	딸만	94	4.07(.62) _a	
	둘 다 있음	40	4.38(.52) _b	
속담전체	아들만	64	4.02(.57) _{ab}	5.98**
	딸만	77	3.89(.50) _a	
	둘 다 있음	32	4.28(.57) _b	

* $p < .05$. ** $p < .01$. *** $p < .001$.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 속담을 제외한 다른 모든 속담영역의 경우, 아들과 딸이 모두 있는 응답자의 속담 동의도 점수가 딸만 있는 응답자의 점수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 속담의 경우, 아들만 있는 응답자와 딸만 있는 응답자에 비해 두 성별의 자녀를 모두 가진 응답자의 속담 동의도 점수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분석한 자녀수에 따른 속담 동의도의 차이 결과와 더불어, 한 자녀 보다는 두 자녀 이상, 그리고 특히 두 성별의 자녀를 모두 키우는 응답자의 가족가치관이 보다 전통적임을 보여준다.

4. 부모-자녀관계 속담에 대한 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부모-자녀관계 속담에 대한 동의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개인적 특성변인, 가족관련변인, 사회문화변인, 그리고 속담관련변인 등을 포함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적 특성변인으로는 연령변인을 사용하였으며, 가족

관련변인으로는 부모-자녀관계 속담에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 친척에 대한 친밀도 변인을 선정하였다. 또한 사회문화변인은 연변 조선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언어와 문화에 대한 친밀도 변인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속담 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는 속담에 대한 인식(현실반영도, 구시대성, 사용정도) 변인을 포함하였다.

각 속담영역에서의 영향력 변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에 포함된 변인들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12>, 연령은 친척친밀도와는 부적 상관($r = -.14, p < .05$)을 차별관련 속담과는 정적 상관($r = .16, p < .05$)을 보였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친척과는 덜 친밀하였고 아들딸에 대한 차별 관련속담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 보다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척에 대한 친밀도가 높을수록 속담에 대한 현실반영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r = .21, p < .01$) 양육관련 속담($r = .23, p < .01$)과 효도관련 속담($r = .19, p < .05$)에 대한 동의도가 높았다. 또한 응답자들이 중국어보다 조선어에 친숙할수록 속담의 현실반영도가 높고($r = .14, p < .05$) 속담은 구시대적이지 않다($r = -.25, p < .001$)고 인식하였으며, 대부분의 속담영역에서 속담의 동의도도 높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하게, 중국문화 보다 조선족 문화에 더 익숙할수록 속담을 덜 구시대적인 것으로 인식($r = -.32, p < .001$)하고 있었고 속담의 모든 영역에서 속담내용에 더 동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자녀관계 속담에 대한 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려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의 투입순서는 연구대상자의 개인 특성변인인 연령을 가장 먼저 투입하고,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족변인인 친척친밀도를 두 번째로 투입하였다. 가족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연변 조선족의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환경관련 변인을 세 번째로 투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선행변인들에 의해 형성되었을 속담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을 투입하여 각 속담영역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는데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인들 간의 상관은 $r = .55$ 이하로 나타났으며, VIF값 역시 1.04 ~ 1.6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의심되지 않았다. 그리고 Durbin-Watson 계수 역시 1.49 ~ 1.78로 2에 근접하여 회귀분석에 적합한 자료로 판단하였다.

부모-자녀관계 속담 중 먼저 양육관련 속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표 13>에서 보듯이 연령, 친척에 대한 친밀도, 문화에 대한 친밀도 변인군이 함께 투입된 3단계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9.50, p < .001$), 이때 변인들은 양육속담 동의도 변량의 약 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담인식 변인군이 투입된 4단계 모델 역시 통계

〈표 12〉 속담동의도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1. 연령	1.00						
2. 친척친밀도	-.14*	1.00					
3. 언어친밀도	.13	-.04	1.00				
4. 문화친밀도	-.01	-.01	.55***	1.00			
5. 속담인식1	-.03	.21**	.14*	.09	1.00		
6. 속담인식2	.13	-.05	-.26***	-.32***	-.08	1.00	
7. 속담인식3	.01	.09	-.03	-.02	.39***	.05	1.00
8. 양육속담	.08	.18*	.23**	.36***	.43***	-.14	.13
9. 교육속담	.10	.14	.22**	.29***	.42***	-.11	.11
10. 차별속담	.16*	.10	.12	.22**	.20**	-.04	.12
11. 효도속담	.05	.23***	.22**	.33***	.45***	-.11	.14*
12. 속담전체	.12	.19*	.23**	.31***	.43***	-.15*	.12

* $p < .05$, ** $p < .01$, *** $p < .001$.

〈표 13〉 양육 속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결과

(N = 177)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연령	.00	.00	.07	.01	.00	.11	.01	.00	.12	.01	.00	.13
친척친밀도				.10	.05	.17*	.11	.04	.18*	.06	.04	.09
언어친밀도							.07	.05	.11	.02	.05	.03
문화친밀도							.23	.06	.31***	.26	.06	.36***
속담인식1(현실반영도)										.27	.05	.43***
속담인식2(구시대성)										.02	.03	.04
속담인식3(사용정도)										-.04	.04	-.06
ΔR^2	.01			.03*			.15***			.15***		
R^2	.01			.03			.18			.33		
F	.87			2.91			9.50***			12.06***		

* $p < .05$, *** $p < .001$.

〈표 14〉 자녀교육 속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결과

(N = 168)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연령	.01	.00	.09	.01	.00	.11	.01	.00	.12	.01	.00	.11
친척친밀도				.10	.05	.12	.08	.05	.13	.02	.04	.04
언어친밀도							.07	.06	.12	.03	.05	.05
문화친밀도							.18	.06	.25**	.22	.06	.31***
속담인식1(현실반영도)										.26	.05	.43***
속담인식2(구시대성)										.03	.04	.07
속담인식3(사용정도)										-.03	.05	-.05
ΔR^2	.01			.01			.11***			.15***		
R^2	.01			.02			.13			.28		
F	1.31			1.78			6.06***			8.93***		

** $p < .01$, *** $p < .001$.

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12.06, p < .001$) 약 33%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최종모델에서 개별변인의 영향력을 보면 속담의 현실반영도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영향 변인이었으며($\beta = .43, p < .001$), 문화친밀도($\beta = .36, p < .001$)가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녀교육 속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역시 양육속담에 대한 동의도 결과와 비슷한 영향력 양상을 보였다(표 14). 연령, 친척에 대한 친밀도, 문화에 대한 친밀도, 속담인식 변인군이 모두 포함된 4단계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8.93, p < .001$) 이때

〈표 15〉 아들딸 차별속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결과

(N = 183)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연령	.01	.00	.14	.02	.01	.17*	.02	.01	.18*	.02	.01	.18*
친척친밀도				.11	.07	.11	.11	.07	.11	.07	.08	.08
언어친밀도							.01	.08	.01	-.02	.08	-.02
문화친밀도							.23	.10	.21*	.25	.10	.23*
속담인식1(현실반영도)										.12	.08	.13
속담인식2(구시대성)										.02	.06	.03
속담인식3(사용정도)										.06	.07	.07
ΔR^2	.02			.01			.04*			.03		
R^2	.02			.03			.08			.10		
F	3.76			2.99			3.63**			2.79**		

* $p < .05$. ** $p < .01$.

〈표 16〉 효도 속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결과

(N = 187)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연령	.00	.00	.04	.01	.00	.09	.01	.00	.10	.01	.00	.10
친척친밀도				.14	.05	.22**	.15	.05	.22**	.09	.04	.14*
언어친밀도							.05	.05	.08	.00	.05	.00
문화친밀도							.23	.06	.30***	.25	.06	.33***
속담인식1(현실반영도)										.26	.05	.40***
속담인식2(구시대성)										.02	.03	.03
속담인식3(사용정도)										-.03	.04	-.05
ΔR^2	.00			.05**			.13***			.14***		
R^2	.00			.05			.17			.31		
F	.26			4.59*			9.51***			11.41***		

* $p < .05$. ** $p < .01$. *** $p < .001$.

〈표 17〉 속담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결과

(N = 158)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연령	.01	.00	.11	.01	.00	.15	.01	.00	.15	.01	.00	.17*
친척친밀도				.12	.05	.19*	.19	.05	.19*	.05	.05	.09
언어친밀도							.06	.05	.10	.02	.05	.03
문화친밀도							.19	.06	.28**	.23	.06	.34***
속담인식1(현실반영도)										.25	.05	.42***
속담인식2(구시대성)										.02	.03	.04
속담인식3(사용정도)										-.03	.05	-.05
ΔR^2	.01			.03*			.12***			.15***		
R^2	.01			.05			.17			.31		
F	1.83			3.71*			7.55***			9.68***		

* $p < .05$. ** $p < .01$. *** $p < .001$.

변인들의 설명력은 28%였다. 개별변인의 영향력은 속담의 현실반영도 인식($\beta = .43, p < .001$)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문화친밀도($\beta = .31, p < .001$)가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쳤다.

〈표 15〉에 의하면, 아들딸 차별 속담에 대한 동의도는 연

령과 친척친밀도, 문화친밀도 변인군이 함께 투입된 3단계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 3.63, p < .01$). 이 때 변인들의 설명변량은 약 8%였으며, 개별변인 중 문화친밀도($\beta = .21, p < .05$)와 연령($\beta = .18, p < .05$)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담인식 변인군이 추가로 투입된 4

단계 모델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F = 2.79, p < .01$), 추가 투입변인인 속담인식 변인들의 경우 개별적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도 속담에 대한 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결과(표 16), 연령, 친척친밀도, 문화친밀도, 속담인식 변인군이 모두 투입된 4단계 모델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11.41, p < .001$), 31%의 설명력을 보였다. 개별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현실반영도에 대한 속담인식($\beta = .40, p < .001$), 문화친밀도($\beta = .33, p < .001$), 친척친밀도($\beta = .14, p < .05$)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관계 속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표 17), 연령과 친척친밀도가 함께 투입된 2단계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3.71, p < .05$) 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문화에 대한 친밀도 변인이 추가 투입된 3단계 모델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 = 7.55, p < .001$) 설명변량은 17%였다. 이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별변인은 문화친밀도($\beta = .28, p < .01$)와 친척친밀도($\beta = .19, p < .05$)였다. 그러나 속담인식 변인군이 추가 투입된 4단계 모델에서는 개별변인의 영향력이 현실반영도에 대한 속담인식($\beta = .42, p < .001$)이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문화친밀도($\beta = .34, p < .001$), 그리고 연령($\beta = .17, p < .05$)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 거주하는 조선족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적인 유교 전통을 공유하지만 근대화과정은 한국사회와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은 개인의 자유와 경제의 사유제를 인정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의 공산주의 사회는 오랫동안 전체적인 평등을 국가이념으로 하여왔기 때문에 집단주의 원리를 중요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연변 조선족의 생활속에서 한국의 전통적 부모-자녀 관계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유지되고 있는가를 현지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서로 다른 근대화 과정을 거친 한국과 연변 조선족의 전통적 부모-자녀 관계 가치관의 변화양상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233명의 연변 조선족을 대상으로 속담에 대한 인식과 동의도를 조사함으로써, 속담 속에 내재해있는 한국의 전통적 부모-자녀 관계 가치관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동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속담동의도가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속담 영역별로 속담 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들의 속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속담의 현실반영도가 높고 구시대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족들이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의 정체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조선족 문화보다는 한족 문화에 더 익숙한 것으로 조사된 조복희와 이주연(2005)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연변 조선족들이 비록 자치구를 형성하여 조선어와 고유한 조선족 문화를 유지해왔으나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사회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는 한족문화에 동화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에 조선족 사회에서 사라졌던 전통적인 민속명절 놀이들이 오히려 개혁개방 이후 생활수준의 향상과 한국의 지원 등에 의해 부활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보고(김석주, 2006)는 과거 조선족 사회 내에서 전통적인 문화가 실제 생활에 반영되는 것에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은 부모-자녀관계 속담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동의수준을 보고하였다. 속담의 4개 영역 중, 효도 관련 속담에서 가장 높은 동의도를 보고하였으며, 자녀교육 관련 속담, 양육관련 속담, 그리고 아들딸에 대한 차별관련 속담 순으로 동의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들이 한국의 전통적 부모-자녀 관계 가치관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결과를 통해 연변 조선족들은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가치관 중 전통적인 효 사상과 자녀교육 가치관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속담영역을 세부 하위영역으로 다시 구분하였을 때 특히 자녀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동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조선족의 높은 자녀교육열을 반영해 주었다. 연변 조선족은 자녀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 이주 초기에 적지 않은 서숙(書塾)을 설립하고 자녀들을 교육시켰다. 특히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면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연변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이들은 신식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근대적인 조선인 학교를 설립하고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민족자치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민족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육열은 오늘날에까지 이어져서 본 연구에서 보듯이 자녀교육 관련 속담에 대해 오늘날에도 가장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연구대상자들은 아들딸에 대한 차별 속담에서 가장 낮은 동의수준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근대사회 이후 나타난 핵가족화와 자녀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한국과는 다른 중국 사회의 특징으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여성 노동력에 대한 사회화와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의 양성 평등적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여성 노동력의

사회화는 '딸 셋 치우면 기둥뿌리 남는 것이 없다', '시집간 딸년치고 도둑 아닌 년 없다'와 같은 여성 노동력 경시 속담에 대해 거부적인 태도를 갖게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관계 속담에서의 동의도를 조사한 조복희와 이진숙(1998)의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한국인과 연변 조선족의 부모-자녀 관계 가치관에서의 차이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조복희와 이진숙(1998)이 사용한 속담문항과 본 연구의 그것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⁶⁾ 4가지 속담영역(양육, 자녀교육, 아들딸 차별, 효도)의 동의도 평균점수를 비교해보면, 효도속담(조선족 4.18/ 한국인 3.77)과 자녀교육속담(조선족 4.10/ 한국인 3.79)은 조선족의 동의도 점수가 더 높은 반면, 아들딸 차별속담(조선족 3.12/ 한국인 3.45)은 조선족의 동의도 점수가 더 낮았다. 이는 한국인에 비해 연변 조선족이 더 보수적인 부모-자녀 관계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한편으로 아들딸 차별에 관한 가치관의 경우는 오히려 덜 보수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변 조선족은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부모-자녀 관계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음과 동시에 중국 사회의 영향을 받아 부분적으로 변화된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속담 동의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부모-자녀 관계 가치관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들딸 차별속담 영역에서만 남자가 더 높은 동의도를 보고하여 아들딸 차별 및 남아선호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의 경우 아직까지 남자가 더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녀수의 경우 1명보다는 다자녀일 때 모든 속담 영역에서 더 전통적인 부모-자녀 관계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효를 중시하고 부모-자녀 관계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수록 실제로 다자녀 출산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확대가족의 동거여부에 따른 속담 동의도의 차이는 확대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오히려 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가족체계를 유지하는 가족의 구성원은 비전통적인 가족체계에서 사는 가족 구성원보다 더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지닐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의 응답자가 부모-자녀관계 속담에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로 사용한 속담내용 및 확대가족의 분류기준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자녀관계 속담은 효도 등과 같이 부모를 모시는 내용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자녀로만 구성된 핵가족의 구성원에게 더 밀접한 것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시부모나 친정부모 뿐만 아니라 시형

제나 친정형제(남자의 경우 친부모나 처가부모 또는 친가 형제나 처가 형제) 등을 한 명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모두 확대가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본 자료에서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아닌 다른 확대가족만을 포함한 경우는 확대가족 응답자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 경우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동의정도는 확대가족여부와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인 것에 대해 몇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학력에 따른 속담 동의도의 차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전통적인 부모-자녀 관계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었다. 학력이 높은 경우 현대사회의 변화된 가치관을 접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을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연변 조선족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력이 높을 경우 조선족 학교보다는 한족학교를 다녔을 확률이 높으며 특히 전과이상의 학교는 대부분 한족학교이기 때문에 조선족 문화보다 한족문화에 노출될 기회가 많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연변에 소재하는 조선족 소학교는 1985년에 419개소이던 것이 1995년에는 177개소로 감소하였고, 초중·고등학교는 1985년 118개교에서 49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병기, 2006). 이는 조선족의 인구가 격감하는 이유도 있지만 보다 큰 원인은 조선족의 한족학교 선호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조선족 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조선족의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자녀구성의 경우 아들이나 딸만 있는 경우보다는 아들과 딸 모두 키우는 경우에 전통적인 부모-자녀 관계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성의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 두 성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실제 아들과 딸을 차별하거나 구별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마지막으로, 연변 조선족의 속담 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속담의 현실반영도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친밀도 역시 모든 속담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속담영역별로 보았을 때, 아들딸 차별속담의 경우 특히 연령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선호와 아들딸 차별의 가치관은 현대사회의 변화된 가족가치관에 있어서 세대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효도 속담의 경우 친척친밀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실제 부모와의 가족관계가 그들의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속담문항과 조복희와 이진숙(1998) 연구의 속담문항 간 일치율은 양육속담 65.6%, 자녀교육속담 81.3%, 아들딸 차별속담 100%, 효도속담 81.8%이다.

한편, 언어친밀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변인이 아니었는데 이는 연변 조선족들이 전통적 부모-자녀 관계 가치관을 보유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조선어의 사용정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상생활에서 중국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중국어에 더 익숙하더라도 가치관은 전통적인 한국사회의 가치관을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연변 자치주는 타민족과의 접촉이 적은 상대적으로 폐쇄된 생활로 한반도의 언어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지만 중국사회에 속함으로써 이중언어 및 이중문화 환경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실제로 연변지역의 민중교육사업은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조선어 혁명론'에 의해 조선어 어휘가 줄어들고 중국어 어휘가 증가하여 표현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였고, 조선족의 중국어 사용은 가정보다는 직장에서,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석주, 2006). 더욱이 개혁개방 이후에는 일본어, 러시아어 및 영어 등 외국어 교육이 활성화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농향도 현상이 심각해져 100년 이상 유지해오던 조선족 공동체 기반의 붕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연변 조선족들이 대체로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 가치관은 그들이 실생활에서 중국어를 더 사용하더라도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임을 예측하게 해준다. 다만, 문화에 대한 친밀도가 그들의 전통적 부모-자녀 관계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조선족 명절을 즐기고 조선족 음식을 즐겨먹고 조선족들이 사는 동네에 거주하는 등 조선족 문화를 유지할 때 전통적인 부모-자녀 관계 가치관도 보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조선족은 역사적, 지정학적 위치에 볼 때, 남북한 교류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중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당당한 위치를 찾음과 동시에 모국의 문화에 대한 친밀감과 정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의 현재의 삶을 이해하고, 주류사회에 대한 적응과 함께 민족문화를 보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학문적 관심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래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속담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함으로써 조선족의 문화특성을 이해하고 변화를 추적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를 둔다.

■ 참고문헌

고영복(2004). **속담속의 인간관계**.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김건환, 이동용, 방운규(2004). 한국과 독일의 문화 간 속담 비교. **독일어문학**, 26, 89-111.

김석주(2006).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문화적 변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1), 16-30.
 김은주, 서영희, 임재택(2006). 한국 속담에 나타난 전통 아동 교육관. **아동교육**, 15(4), 37-55.
 김종도(2007). 한국속담과 아랍속담의 비교연구-富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7(1), 201-212.
 김주광(1993). 한일 양국의 속담에 나타난 여성상.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준영(2006). **입에 익은 우리 말**. 서울: 학고재.
 김희섭, 이경화(2007). 속담을 통해 본 제주의 전통적 자녀 양육관.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4), 303-323.
 모리모토 가즈히코(2007). 한일양국의 가족 속담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언어문화**, 32, 75-111.
 박환영(2003). 속담과 수수께끼 속에 보이는 가족과 친족의 민속학적 연구. **강원도민속학**, 17, 311-334.
 방운규(2004). 여성 관련 속담에 나타난 한국인의 의식구조. **겨레어문학**, 32, 51-83
 서동래(2003). 한일 양국의 속담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성차별 의식 고찰.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재선(1983). **우리말속담 큰사전**. 서울: 서문당.
 송재선(1995). **여성속담사전**. 서울: 동문선.
 심 영(2006). 속담에 나타난 소비가치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소비문화 연구: 바람직한 한국 소비문화 정립의 기초. **소비자학 연구**, 17(2), 85-113.
 안미정(1998). 한일 양국의 속담의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변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편(2002). **중국조선족 역사문화산책**. 춘천: 한림대학교 출판부.
 이기문(1986). **俗談辭典**. 서울: 일조각.
 이병기(2006). 연변 조선족 농촌사회의 인구 이동 실태와 그 시사점. **농업경영·정책연구**, 33(3), 749-776.
 이하배(2001). 우리 속담에 나타난 성차별의 사회화: 유교적 사회화와의 관련 속에서. **한독사회과학논총**, 11, 185-207.
 조복희, 안선희, 이영환, 이진숙(1998). 한국 부모-자녀 관계 속담에 대한 동의도와 가족환경 및 가족 가치관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8), 105-123.
 조복희, 이주연(2005). 부모와 별거하는 중국 조선족 아동의 생활환경과 적응문제. **아동학회**, 26(4), 231-245.
 조복희, 이진숙(1998). 한국 부모-자녀관계 관련 속담의 분류 및 이에 대한 인식도. **아동학회지**, 19(1), 5-25.
 조재운(1986). 한국속담의 구조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주옥파(2004). 한국과 중국 속담에 나타난 여성 이미지에 대

한 비교연구. **선청어문(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논문집)**, 32, 233-254.

최근학(1986). **속담풀이**. 서울: 문학출판공사.

최상록, 지청산, 김룡철(1995). **중국조선족 교육의 현황과 전망**. 중국: 연변대학교출판부.

최상진(1990). 속담을 통해 본 한국인의 심성에 대한 사회적 표상. **사회과학연구(중앙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4(1), 133-176.

최상진, 유승엽(1994). 속담분석을 통해서 본 한국인의 심리 표상. **새국어생활(국립국어연구원)**, 4(2), 63-82.

최성곤(1995). 한일 양국의 속담의 비교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접 수 일 : 2009년 5월 8일

심사시작일 : 2009년 6월 4일

게재확정일 : 2009년 7월 21일

〈부록 1〉 양육관련 속담

구분	내용	M(SD)
양육의 긍정적 측면	볼면 날아갈까 떨구면 깨질까	3.98(1.14)
	자식성공이 부모성공이다	4.59(.76)
	어린이 병엔 어머니만한 의사 없다	4.15(.98)
	돈 놓고는 못 웃어도 아이 놓고는 웃는다	4.51(.82)
	호랑이도 제 새끼는 잡아먹지 않는다	4.53(.88)
	열 사람의 작은 어머니보다 한 사람의 어머니가 더 크다	4.19(1.07)
	아이가 곱다니까 종자담을 잡는다	3.81(1.15)
	아이들이 아니면 웃을 일이 없다(자녀의 가치)	4.12(1.09)
	열손가락에 어느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을까	4.59(.89)
	까마귀도 제자식은 예쁘다고 한다	4.53(.85)
양육의 부정적 측면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4.11(1.05)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 주고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준다	4.17(1.16)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함함하다면 좋아한다	4.39(.84)
	홍년에 어머니는 굶어죽고 아이는 배터져 죽는다	4.00(1.26)
	자식때고 돌아서는 어머니 발자국마다 피가 고인다	4.46(.93)
	곡식은 남의 곡식이 좋고 자식은 내 자식이 좋다	4.48(.86)
		4.30(.53)
	자식 잘못 기르면 호랑이만 못하다	3.95(1.22)
	자식도 많으면 천하다	3.32(1.41)
	자식 과년하면 부모가 반중매쟁이 된다	3.81(1.15)
양육의 부정적 측면	열 새끼 낳은 소 멩에 벗을 날이 없다	4.05(1.05)
	장날이 맏아들 보다 낫다	2.53(1.37)
	자식은 품안에 들 때 제 자식이다	3.79(1.25)
	자식이 자라면 상전된다	3.65(1.16)
	어미는 좁쌀만큼 벌어들고 아들은 말뚱만큼 씹 먹는다	3.74(1.25)
	무자식이 상팔자	3.03(1.52)
	가지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	4.11(1.05)
	자식은 애틀이라	3.57(1.38)
	자식 많은 어미 허리 펼 날 없다	3.93(1.17)
	자식 걸 낳지 속은 못 낳는다	4.19(.98)
양육의 부정적 측면	자식 없는 사람은 울지 않아도 자식 있는 사람은 운다	3.65(1.33)
	부모는 문서없는 종이다	3.92(1.15)
	자식을 길러 보아야 어버이 공을 안다	4.41(.90)
		3.72(.72)

〈부록 2〉 자녀교육관련 속담

구분	내용	M(SD)
모델링	부모가 착해야 효자 난다	4.23(1.10)
	아이보는 데서는 찬물도 못 먹는다	4.21(1.02)
	대대 곱사등이 / 그 아비에 그 아들	3.80(1.22)
	부모가 온 효자가 되어야 자식이 반 효자	4.26(.96)
훈육		4.13(.70)
	애들을 귀해하면 어른 머리에 상투를 튼다	3.83(1.14)
	자식을 귀히 알거든 객지로 내보내랴	4.04(1.04)
	미운 애한테는 엿을 주고 귀여운 애한테는 매체를 준다	3.93(1.56)
	최초리 아끼면 자식 버린다	4.09(1.10)
	달군 쇠와 아이는 때려야 한다	3.60(1.35)
	외아들에 효자 없다	3.35(1.35)
	귀엽게 기른 자식이 어미 꾸짖는다	3.78(1.16)
	매로 키운 자식이 효성있다	3.51(1.40)
		3.75(.82)
교육의 중요성	말을 낳거든 시골로 보내고 아이를 낳거든 공자 문으로 보내라	3.34(1.36)
	돈 모아 줄 생각 말고 자식 글 가르쳐라	4.32(.92)
	황금 천냥이 자식 교육만 못하다	4.63(.75)
	맹모삼천	4.50(.96)
	4.35(.66)	

〈부록 3〉 아들·딸 차별관련 속담

구분	내용	M(SD)
아들딸 차별 속담	아들은 내 조상 표를 돌보나 딸은 남의 조상묘를 돌본다	3.94(1.16)
	아들이 있어야 남들이 넘보지 않는다	3.42(1.38)
	아들은 장가가면 반 남이 되고, 딸은 시집가면 온 남이 된다	3.52(1.37)
	영감 밥은 누워먹고 아들 밥은 앉아 먹고 딸 밥은 서서 먹는다	3.38(1.37)
	아들네 집에 가서는 밥먹고 딸네 집에 가서 물 마신다	2.45(1.27)
	다남(多男)은 천복(天福)이다	3.40(1.29)
	딸 셋 치우면 기둥뿌리 남는 것이 없다	2.68(1.42)
	시집간 딸년치고 도둑 아닌 년 없다	2.47(1.38)
	딸 다섯 치운 집에는 도둑도 안 들어간다	2.88(1.42)
	딸은 두 번 서운하다	2.53(1.42)
	만딸은 살림밑천이다	3.30(1.43)
	며느리는 데리고 살아도 딸은 데리고 못산다	3.61(1.29)

〈부록 4〉 효도관련 속담

구분	내용	M(SD)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4.30(.95)
	아버지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4.05(1.06)
효도의 중요성	효성이 지극하면 돌위에 풀이 난다	4.41(.96)
	부모 죽은뒤 아이고 하지말고 살아계실 때 물 한모금만 못하다	4.36(.94)
	죽어도 상여 뒤에 따라와야 자식이라	3.95(1.18)
효도의 어려움		4.21(.70)
	자식이 부모 맘 반이면 효자된다	4.43(.78)
	자식효도는 부모 반절만 해도 좋다	4.18(.94)
	열두 효자가 악처 하나만 못하다	3.69(1.33)
	긴병에 효자 없다	4.21(.99)
	한 부모는 열자식 거느려도 열자식은 한 부모도 못 거느린다	4.19(1.03)
	산 조상이 죽은 조상보다 무섭다	4.06(1.10)
		4.14(.64)

